

# 보증보험시장 2008년 개방

## KDI, 2014년까지 3단계 방안 제시

〈한국개발연구원〉

국내 보증보험시장이 2010~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증권에서 '보증보험 다원화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증보험시장 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모든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일부 보증금과 공제조합이 제한적으로 보증 업무를 하고 있다. KDI는 1단계 개방 대상으로 건설공사 이행보증보험과 모기지보험, 신원보증보험을 들었다. 이중 건설공사 이행보증보험이 개방될 경우 일반 손해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모기지보험은 손해보험사에 이미 허용돼

있지만 1세대 1주택 이하, 국민주택 규모, 비투기지역으로 제한돼 있고 신원보증보험은 취업에 필요한 재정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하고 있다. KDI는 2단계 개방 대상으로 중소기업 신용보험을 제외하고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하고 있는 신용보험을 제시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드는 보험상품이다. 마지막 3단계 개방 대상으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은 채무이행보증보험을 들었다. KDI는 1단계 방안은 2008년 4월부터 시행하되 2~3단계는 2010년 4월까지 1년 단위로, 2012년 4월까지 2년 단위로, 2014년 4월까지 3년 단위로 각각 개방하는 3가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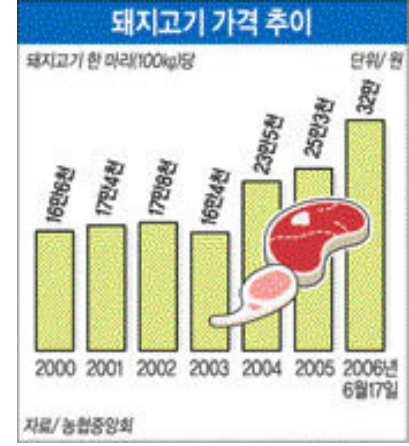
정을 제시했다. KDI는 보증보험시장 개방 때 현재의 전업사 체계를 유지할 지, 일반 손해보험사의 경영을 허용할 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증보험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설립 자본금은 최소 300억원으로 하고 보증한도의 경우 전업사는 지급여력금액의 100배, 겸영사는 지급여력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배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KDI 나동민 박사는 "보증보험 시장이 개발될 경우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편익이 커질 것"이라며 "보증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보증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말

했다. 나 박사는 "그러나 경쟁 심화로 보증보험 사고 급증과 과당 경쟁 등 부실화 가능성도 있다"며 "서울보증보험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쳐 이 회사에 투입된 공적자금 잔여액(9조7천억원)의 회수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과 노동계는 보증시장 개방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손해보험사에 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산업자본의 보증기관 지배를 뜻한다"며 "재벌계 손보사의 사적 이윤 추구가 보증산업의 공공성이 없어지고 과당 경쟁으로 보증기관이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금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 등은 이날 토론회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보증시장 개방은 재벌 손보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자금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서민 금융과 중소기업 보증을 위축시켜 금융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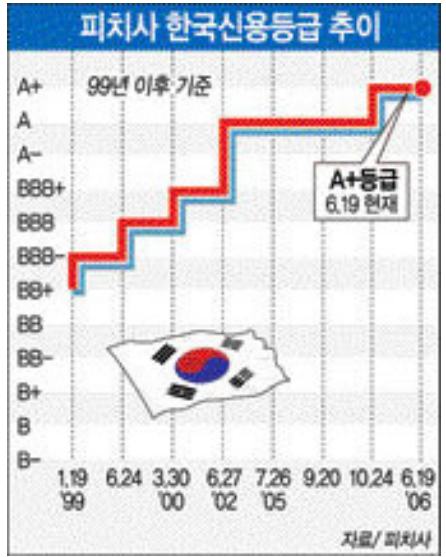
# 돼지 '귀하신 몸'

## 돼지고기값 사상 최고

## 100kg 한 마리 32만원



라가는 것은 국내 사육두수 증가세가 정체를 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차장은 "이전에는 사육두수가 연평균 5%씩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폐수, 약취 등에 대한 민원 문제로 돼지 축사를 짓기 어려워지면서 공급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사료 값 상승에 따른 부담도 컸고 2003년 말부터 미국산 최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 연 영향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특히 지난 겨울 호흡기 질병으로 인해 폐사율이 높았던 탓에 올해 돼지고기 공급량이 작년보다 15~20% 감소한 것도 한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의 접점이 되는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는 삼겹살 100g의 연중 최고 가격이 2003년 1천390원에서 2004년 1천800원, 2005년 1천820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지난 16일 현재 1천920원을 기록하고 있다. 농협유통 정책팀 바이어는 "삼겹살 가격이 kg당 2만원선이 되면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상승세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계절적으로 다음달 중순 이후면 공급량도 늘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도 "미국산 최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도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민의 고기'인 돼지고기 가격이 올



## 피치, 한국신용등급

# 'A+' 유지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1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고유가와 원화 강세, 주요 교역 파트너들의 점진적인 수요 감소 등 요인들이 강력한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재정운영과 외환 보유고 및 유동성 비율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신용 편더멘탈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했다. 피치는 이어 "위조지폐 제조와 돈세탁 등에 대한 미국 강경 대응 이후 북한이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면서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북한이 약속했던 핵폐기 문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치는 "이후 북한 정권은 미국에 대해 강경 대응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더 시간을 지연시킬 위험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강신호 회장 獨 모교서

## '원로자문위원'에 추대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모교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원로자문위원 격인 ' 명예 세너터(Senator)'로 추대된다. 19일 전경련에 따르면 강 회장은 21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 세너터' 추대 행사를 갖는다. 대학 행정기구에 대한 자문과 대학 운영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는 '세너터'는 대학 내부 인사로 구성되지만 '명예 세너터'는 외부의 전문가, 명망가들이 대부분이다. 설립된 지 550년이 된 프라이부르크 대학과 같은 유서깊은 대학의 '명예 세너터'는 사회적 성공은 물론 학문과 인품, 명성을 두루 반영하기 때문에 큰 영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명예 세너터'는 10년에 한번꼴로 극히 드물게 선임되며 더욱이 외국인, 그것도 아시아계가 추대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우산, 색깔로 고르세요"

18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이 여름 장마철에 사용할 다양한 색상의 우산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년만에 최고

## 4월 현재 전국 5만 5,465가구

## 광주, 미분양주택도 크게 늘어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이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 수가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4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현황'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은 5만5천465가구로 한달전 대비 4% 늘었으며, 특히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만2천228가구로 8.7% 증가했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1만2천228가구를 넘어선 것은 2001년 4월(1만2천886가구)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월 430가구에서 4월 915가구로, 경기도는 1천283가구에서 2천130가구로 각각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특히 부산은 최근 아파트 분양이 많았던 사하구(1천677가구), 부산진구(951가구), 해운대구(809가구), 사하구(704가구) 등에 미분양 물량이 집중됐다. 또 강원 1천201가구, 충남 919가구, 경북 1천41가구, 경남 2천704가구가 나타나 최근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 분위기를 읽게 했다. 평형별로는 전용 18~25.7평 이하가 5천588가구(3월 4천736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18평 이하 3천202가구(3천411가구), 25.7평 초과 1천103가구(1천167가구) 순이었다. 전국 미분양주택 총 가구는 1월(5만5천847가구) 이후 최대였는데, 민간부문 5만870가구(5% 증가), 공공부문 4천595가구(-6.1%)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광주(56.3%), 경북(33.1%), 부산(24.8%), 인천(11.5%) 등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경기도(-8.3%), 서울(-3.4%), 충북(-7.3%)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현대차, 도요타·혼다 넘어섰다"

## 미국 '마켓워치' 보도

현대차가 도요타와 혼다를 넘어섰다고 미국의 경제전문 뉴스사이트인 마켓워치가 19일 보도했다. 마켓워치는 "일부에서는 현대차가 도요타의 쉐니나 혼다 어코드를 따라잡으려만 갈 길이 멀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대차는 도요타와 혼다를 넘어선 자리를 차지할 만하다"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소나타와 아제라(국내 판매명 그랜저)를 가진 현대차는 쉐니와 어코드

가 막고 있던 문에 침입해 휘청거리게 만들었다"며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들을 긴장시키는 회사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이트는 특히 아제라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강력한 3.8리터 V6 엔진과 1갤런당 19~28마일을 달릴 수 있는 능력, 263마력의 파워 등을 감안할 때 아제라의 판매가인 2만4천420달러는 할인 판매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인테리어 디자인과 내부 장식제도 탑승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도록 꾸며졌다고 마켓워치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 '꿈의 디스플레이' AM OLED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 양산시대 연내 열린다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양산시대가 연내 열린다. 삼성SDI와 LG필립스LCD는 오는 4·4분기 양산을 위해 라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만과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한국 기업의 양산라인 구축 과정을 지켜보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4세대 AM OLED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마치 막 방울을 쏟고 있다. 천안사업장에 1만4천평 규모의 전용라인이 구축되면 곧바로 시범가동을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경부터 양산 제품이 나올 전망이다. 삼성SDI는 LTPS(저온폴리실리콘) OLED 업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인 4세대 규격(730mm×920mm)의 유리관을 사용해 연간 최대 2천만개(휴대폰용 기준)의 OLED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삼성SDI는 전면(前面) 발광기술을 적용한 휴대용 QVGA급 2.0인치부터 2.6인치까지 다양한 크기의 AM OLED로 시장에 진입한 뒤 단계별로 DMB, PMP, 게임기 등으로 시장을 확대, 2008년부터는 연간 1억개 이상을 생산할 계획이다. LG필립스LCD는 오는 4·4분기에 구미 P

▲OLED= 응답속도가 마이크로세컨드(μs,100만분의 1초)로 밀리세컨드(ms,1천분의 1초) 단위의 LCD에 비해 1천배 이상 빨라 완벽한 동영상 구현할 수 있다. 또 백라이트(Back Light) 없이 스스로 발광하기 때문에 두께와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호남대학교	[계약직] 호남대학교 승용차 운전원(서울근무)	고졸/경력10년	회사내규	06/21	062-940-5853
㈜엘에스텍	관리 사무직/CAD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4	062-972-6102
㈜한진디엔비	무역사무원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2,000~2,200	06/24	062-953-4510
신성하이텍(주)	생산관리 남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6/24	062-952-1441
㈜세진텔레콤	철도신호기술자(자격증소지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5	062-522-8888
포토양주	고객관리 및 상담/촬영보조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6/26	062-222-0948
㈜삼리건설	건설기술자 경력 직원	대졸/경력4년	회사내규	06/26	062-233-7733
삼일패인트공업(주)	영업 경력 및 신입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6/30	032-814-3131
이지디지탈(주)	공정검사 및 수입검사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6/30	062-955-0801
㈜비이오리소스	기계 설비 설계 전문가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6/30	061-755-8722
㈜수호시스템	광주신세계 보안팀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30	062-360-111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